

목포권 가계대출 증가율 전국 최고 왜? 부동산 들썩이자 주택대출 급증

1인당 575만원 ... 2010년 이후 16% ↑

‘햇살론’도 큰 영향 ... 금융부실화 우려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2010년 이후 전국 최고로 나타나 연례를 상수 등 금융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가계대출 현황과 대응과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서남부 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3조8904억원으로 2007년 말(3조340억원)에 비해 4년 만에 8564억원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575만원으로 지난 2008년 1월 이후 3년 만에 100만원 이상 급증했고, 이는 2010년 이후 전국(평균 6.9%)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15.6%)이다. 연도별 가계대출(잔액 기준) 증

가 규모를 보면 2008년 2628억원, 2009년 194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4231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6월 이후 폭등하기 시작한 서남권의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남양진도시와 목포 하당지구 등에 부동산 수요와 투자가 집중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투기목적의 대출이 급증했다. 특히 2010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가계대출 증가액의 68.6%를 점유,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올 1월 말 현재 1조5163억원으로 지난 2008년

4월(1조586억원)에 비해 4577억원 증가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149억원에 그쳤으나 2009년 1856억원, 2010년 2479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실제 지난 6일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목포지역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지난해 말 보다 19.7 급등한 131.0을 기록했고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 들어 18.8% 올랐다. 경남 진해(24.7%), 김해(21.6%)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높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 상품 ‘햇살론’도 빠르게 가계대출 규모를 키웠다.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이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의 ‘햇살론’에 대출자가 몰리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일반 가계대출 비중이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높은 61.5%를 기록했다. 문제는 서남권의 경우, 신흥과 저

축은행 등 비은행권에 의한 대출 비중이 은행(36.3%)보다 훨씬 높은 63.7%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 지역에 최근 저축은행 부실과 같은 금융불안인 재발하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bankrun) 등으로 인해 비은행권의 저신용 차입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연체율 상승과 대출 만기 시 상황을 못하는 상황 등 전체적인 금융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금융불안은 지역 경기 변동에 영향을 줄 뿐더러 ‘신용카드 사태’처럼 일순간 금융체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임투세공제 제도 유지”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어 임투자세액공제(임투세공제) 제도의 유지 등을 담은 ‘세계개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회, 각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임투세공제가 없어지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을 뿐 아니라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축소되기 때문에 임투세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필뉴스



농업용 무인헬기로 방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14일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와 농부령 예방을 위해 농업용 무인헬기 방제사업을 지난해보다 72% 확대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보성군 벌교읍 농경지에서 방제 시연회를 열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중견기업 되면 혜택 160개 소멸”

중견기업위 간담회 “일부러 회사 쪼개 중기로 남는 실정”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순간 160개의 지원 혜택이 끊어집니다.”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했지만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일부러 회사를 쪼개 중소기업으로 남는 실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이라는 위치에서 사업을 할수록 불만을 쏟아냈다.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희상

운산그룹 회장이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에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포문을 먼저 열었다. 이 회장은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학회장이 표정호 순천향대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졸업했다는 이유로 160개의 지원 혜택을 끊어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필뉴스

독일 바스프 여수에 800억 추가 투자

MDI 생산시설 투자협약 체결

독일 바스프(BASF)사가 여수산단에 8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전남도는 1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김홍석 여수시장, 웨인 스미스 독일 바스프사 폴리우레탄 부문 사장, 조진욱 한국바스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국가산단 내 MDI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MDI는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 스펀지, 신발창 등의 원료로 쓰인다.

투자협약에 따라 바스프사는 80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여수산단 내 기존 연 19만t 규모의 생산능력을 25만t까지 늘리는 MDI 생산공장 및 원료생산 설비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MDI 생산량이 증대돼 내수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원재료 공급 등 국내 연관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직접적인 고용창출 인력도 4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MOA Signing Ceremony 투자협약체결 2011. 6. 14 Jeoll Namdo Yeosu City BASF 박준영 전남도지사(왼쪽 세번째)와 김홍석 여수시장(오른쪽), 웨인 스미스(Wayne T. Smith, 왼쪽 두번째) 독일바스프 폴리우레탄부문 사장, 조진욱 한국바스프 회장(왼쪽)이 14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독일바스프가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에 800억원을 추가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박준영 전남지사는 “바스프사가 여수에 MDI 생산시설을 확대 투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신규사업 또한 여수로 투자를 결정해줄 것을 웨인 스미스 사장 등 바스프사 임원진에게 당부했다.

1998년 설립돼 2000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한국바스프㈜ 여수 공장은 연간 폴리우레탄계 원재료인 MDI 19만t, TDI 16만t, CCD 2만t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용 인력은 280여명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LED조명 KS인증 심사 간소화

KC인증과 중복 항목 면제

LED조명 제품의 KS(한국산업표준) 인증 심사가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LED조명 제품의 KS인증 취득 과정에서 기간과 비용, 중복심사 등 인증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광주일보 6월10일자 8면)에 따라 이를 간소화하는 내용으

로 KS인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은 LED 제품은 KS인증 심사를 받을 때 KC인증과 중복되는 항목은 심사를 면제받는다. LED 제품 중 컨버터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컨버터 등 다섯 품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험항목은 KC인증(10~13개)과 KS인증(17~20개)에서 7~10개가 중복된다. 단, 시험항목 면제를 받으려면 1년 이내의 최초 KC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이 간소화되면 KS인증 수수료가 280만~35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승산업 ‘전도수문용 전도장치’ 광주·전남중기청 성능인증 획득

(주)우승산업의 ‘전도수문용 전도장치’가 13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서를 획득했다. 중기청은 이날 청장실에서 업체 및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능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인증받은 제품은 저수지 하천 등에 설치돼 재해를 예방하고 용수를 확보와 하천 건전화에 방지는 용도로 사용된다. 폭우 시 전진이 되더라도 기계적 차단개방기능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다 내구성이 우수해 부품교환이 거의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주)우승산업은 수문과 권양기, 펌프케이트, 제진기, 반



달형최전수문 등을 전문으로 제작·시공 하는 회사로 품질 규격인 ISO 9001과 KS 인증을 획득하고 사내에 부설기술 연구소를 설립, 20여건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등록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지역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